

제80차 OPEC總會 이후의 油價전망

— 産業研究院 —

OPEC (石油輸出國機構)는 지난해 12월 11~20일 기간중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80차 정기총회에서 금년 상반기에 산유량을 약 7% 감축하고, 배럴당 18달러의 固定價格制로 복귀하기로 합의하였다.

국제原油價는 OPEC의 새로운 정책과 계절적 수요에 힘입어 금년 초까지 배럴당 18달러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회원국의 合意遵守여부가 불투명하고, 세계石油市場에 공급과잉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87년 평균으로는 86년보다 배럴당 2달러 정도 상승한 17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세계石油수요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非OPEC 산유국의 석유공급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OPEC의 減産政策이 지속됨에 따라 앞으로 油價는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되나, 向後 4~5년간의 供給調整기간 동안에는 그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공급조정기간이 끝나는 90년대 부터는 상승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OPEC총회는 회의벽두부터 油價인상과 감산의 원칙에 회원국의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예전과 달리 성숙한 분위기를 보였다. 에콰도르, 가봉 등 일부 소규모 산유국이 감산을 거부하고, 이라크가 交戰國인 이란과 동등한 쿼터의 배정을 요구하면서 한동안 회의가 교착상태에 빠지기도 하였지만, 油價회복을 향한 회원국

의 공통의지가 강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적극적인 감산의사를 보임으로써, 이라크를 제외한 12개 회원국은 產油量 감축에 무난히 합의, 이를 준수하기로 약속하였다.

OPEC는 이번 총회에서 87년 상반기 산유량을 現水準보다 7.25% 감축하여 하루 1,580萬배럴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률적으로 하향조정된 각국의 산유량쿼터 중 최대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는 종전의 하루 435만 3,000배럴에서 413만 3,000배럴로 축소 배정되었고, 그간 쿼터배정에서 제외되었던 이라크도 일단 146만 6,000배럴이 배정되었다.

그러나 이번 감산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이라크가 현재 하루 170만배럴의 생산규모를 앞으로 200만배럴 이상으로까지 확대 生産할 것으로 예상되어, OPEC가 전체生産限度를 1,580만배럴 수준에서 유지하기는 어려운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공급으로 인해 이란의 현재 산유량이 배정된 쿼터를 훨씬 하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타 회원국의 합의준수가 이루어질 경우 OPEC 전체산유량이 하루 1,600만배럴 수준까지는 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OPEC는 油價를 배럴당 18달러로 하는 固定價格制 (Fixed Price System)를 채택하고, 일종의 할인판매 수단인 精製價值연계판매방식 (netback value linked sales system)을 지양하기 위해 각국에 1개월의 적응기간을 주어 87년 2월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OPEC는 이미 지난해 10월 총회부터 과거의 公示價制度(Government Selling Price System)를 대신할 固定價格制度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固定

價格制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온건한 노선을 견지하던 야마니 前石油相을 전격 해임하고, 배럴당 28달러의 油價 목표를 주장하던 이란, 리비아, 알제리 등의 강경파와 합의를 성공시키면서, 11월 14일 개최된 OPEC 價格委員會를 거쳐 이번 총회의 勸告案으로 발전된 것이다.

〈表 - 1〉 OPEC國別산유량, 생산능력 및 生産쿼터

(단위 : 만B/D)

	產油量 ¹⁾ (86. 11)	생산능력	暫定쿼터 (86. 11. 12)	暫定쿼터 (87상반기)
사우디아라비아	470.0	880.0	435.3	413.3
이 란	160.0	300.0	231.7	225.5
이 라 크	170.0	200.0	200.0 ²⁾	146.6
쿠 웨 이 트	112.0	230.0	96.0	94.8
아 랍에 미리트	121.5	212.5	95.0	90.2
카 타 르	30.0	50.0	30.0	28.5
베 베 수 엘라	171.4	250.0	157.4	149.5
나 이 지 리 아	130.0	180.0	130.4	123.8
리 비 아	100.0	150.0	99.9	94.8
인 도 네 시 아	131.3	170.0	119.3	113.3
알 제 리	60.0	80.0	66.9	63.5
가 봉	16.0	20.0	16.0	15.2
에 과 도 르	22.0	30.0	22.1	21.0
합 계	1,694.2	2,752.5	1,700.0	1,580.0

註 : 1) 暫定推計值임.

2) 이라크의 生産쿼터는 이번에는 배정되었으나 지난 10월 쿼터결정에서는 제외되었으므로 당시의 생산수준인 하루 200萬배럴을 쿼터로 간주하였음.

〈資料〉 Petroleum & Energy Intelligence Weekly Inc.,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Nov. 10, 1986.
Reuter.

배럴당 18달러의 고정가격은 價格委員會의 권고안에 근거하여 OPEC가 생산하는 6개 油種에 非OPEC 산유국 멕시코가 생산하는 이스무스(Isthmus)를 포함한 7개 油種의 平均値로 정하였다.

또한 輕質油와 重質油의 價格격차는 사우디 아라비아 產 重質油와 나이지리아 產 보니아이트油간에 배럴당 2.65달러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이는 유종간의 價格격차가 클 경우 販路확보가 어려워지는 輕質油생산국의 반발로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固定價格制의 붕괴를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로 보인다.

OPEC이 감산에 합의하고 固定價格制로 복귀함에 따라 세계主要市場의 先·現物油價가 일제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22일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美國西部텍사스 產 中質油(WTI) 現物價格은 배럴당 16.9달러로 OPEC총회개최 이전 시세보다 배럴당 1달러 이상 상승하였으며, 런던市場에서 英國北海 產 브렌트油 2월 인도분은 22일 한때 배럴당 18달러에 거래되기도 하여 작년 1월 이후 최고시세를 보였다.

이로써 지난 9월 이후 완만하게 상승해오던 국제原油價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진입하고 있다. 배럴당 18달러선을 육박하고 있는 油價가 상승세를 지속하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작년과 같은 폭락사태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작년 12월 이후 油價의 폭락을 자초했던 OPEC의 石

〈表 - 2〉 국제原油價 추이 및 전망

(單位 : \$/B)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DRI ¹⁾	27.58	14.51	15.28	16.25	—	—	—
WEFA ¹⁾	28.09	13.79	14.75	16.74	18.63	21.03	23.65
Henley Centre ²⁾	26.40	13.60	13.12	15.42	16.38	17.82	18.80

註 : 1) OPEC加重平均 輸出價(f. o. b.)임.

2) OECD중 6大國의 加중평균 수입액(f. o. b.)임.

〈資料〉 DRI, European Review, Dec. 1986.
WEFA, World Economic Outlook, Oct. 1986.
The Henley Centre, Framework Forecasts for the EEC Economies, Aug. 1986.

〈表 - 3〉 自由世界石油수급¹⁾ 추이 및 전망

(單位：萬B/D)

	1985			1986			1987	
	WEFA	DRI	IEA	WEFA	DRI	IEA	WEFA	DRI
消費								
O E C D	2,933	3,436	3,400	3,017	3,522	3,480	3,091	3,582
O P E C	457	368		462	369		474	369
非産油開途國	933	765	} 1,160	957	778	} 1,180	994	792
其他 ²⁾	0	0		0	0		0	0
計	4,323	4,569	4,560	4,436	4,669	4,660	4,559	4,743
供給								
O E C D	1,706	—	1,710	1,692	—	1,710	1,699	—
O P E C	1,605	1,584	1,720	1,797	1,803	1,910	1,827	1,803
對共產圈純輸入	97	—		96	—		98	—
其他 ²⁾	914	—	} 1,110	851	—	} 1,120	935	—
計	4,322	3,834		4,540	4,436		4,057	4,740

註：1) NGL 포함.

2) 在庫變化, 통계상 不一致 포함.

〈資料〉 WEFA, World Economic Outlook, Oct. 1986.

DRI, Review of the U. S. Economy, Sep. 1986.

IEA, Oil Market Report, Dec. 1986.

油政策은 지난해 8월과 10월의 잠정적인 감산합의를 거치면서 수정局面을 보여왔다. 당초 價格戰爭이라도 불사함으로써 非OPEC 산유국에게 잠식당해온 石油市場을 되찾아 장기적으로 價格決定力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추진된 市場占有率政策이 회원국의 外換收入을 대폭 축소시켜 오히려 극심한 피해를 안겨주게 되자, OPEC는 油價를 회복하기 위한 감산정책으로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油價도 지난 7월의 배럴당 10달러수준의 바닥권을 벗어나 배럴당 14~16달러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

OPEC의 정책선회가 금번 총회를 통하여 固定價格制 채택과 감산지속이라는 형태로 結實을 맺음에 따라 向後 OPEC의 石油政策은 油價회복을 겨냥한 供給調整政策으로 정착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르웨이,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 상당수의 非OPEC산유국도 OPEC의 금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協調減産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대다수의 산유국은 油價회복에 대한 광범한 합의를 이루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油價폭락은 産油開途國의 경상수지악화, 국내경

제 불황심화 등의 경제난을 가중시켜 국제金融 불안을 고조시키고 換率을 교란시켰을 뿐만 아니라, 美國, 英國 등 일부 선진국경제에는 국내石油 및 石油관련산업의 침체와 失業率 증가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둔화시키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 일각에서도 低油價를 비판하고 油價안정을 회기하는 소리가 높아져온 것이 사실이다.

세계石油市場여건도 油價회복을 고무하고 있다. 지난해의 油價하락으로 세계石油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石油 소비국의 석유소비증가 억제노력으로 수요의 급증이 억제되고 있기는 하지만, 自由世界石油수요는 작년에 2.2%, 금년에 2.3%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石油공급은 低油價로 인한 非OPEC산유국의 石油생산 위축, OPEC의 감산지속 등으로 그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급과잉현상은 점차 완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OPEC가 감산합의를 준수하고 배럴당 18달러의 고정가격제를 실시할 경우 油價가 단기적으로는 배럴당 18달러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表 - 4) 自由世界 石油수급 장기전망

(單位: 萬B/D)

	1986	1990		1995		2000	
	DRI	DRI	PEL	DRI	PEL	DRI	PEL
消 費							
O E C D	3,483	3,754	—	3,928	—	3,987	—
O P E C	369	379	—	436	—	507	—
非產油開途國	777	869	—	943	—	1,043	—
計	4,630	5,002	5,200	5,307	5,530	5,537	5,630
供 給							
O P E C	1,866	2,406	2,250	2,977	2,580	3,421	2,770
非 O P E C	2,519	2,478	2,950	2,243	2,950	2,124	2,860
其 他 ¹⁾	245	118	—	87	—	— 8	—
計	4,630	5,002	—	5,307	—	5,537	—

註: 1) 在庫變化, 對共產圈純輸入, 통계상 不一致 포함.
 (資料) DRI, U. S. Long-Term Review, Summer 1986.
 PEL, World Energy Outlook to 2000.

(表 - 5) 國際原油價 長期展望

(單位: \$/B)

	1986	1990	1995	2000
DRI ¹⁾	15	17.5(20)	21.8(32.5)	32.3(62.5)
CONOCO ²⁾	—	20	—	50
PEL ²⁾	—	15	—	35

註: 1) 1985년 不變價格 기준, ()안은 명목가격.
 2) 1986년 不變價格 기준.
 (資料) DRI, U. S. Long-Term Review, Summer 1986.
 CONOCO, World Energy Outlook through 2000.
 PEL, World Energy Outlook to 2000.

는 금년 초까지 난방유수요의 가세로 OPEC 石油에 대한 수요가 하루 1,750만배럴로 증가, OPEC의 생산한도를 약 150만배럴 초과, 누적재고를 해소시키면서 빠른 속도로 油價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럴당 18달러 수준의 油價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이번 총회에서 교전국인 이란·이라크의 대립상이 선명하게 드러났으며 이라크가 최종 감산합의를 거부하고 나섬에 따라 회원국의 단합에 장애요인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OPEC의합

의준수여부도 불투명하다.

지난해 8월 이후의 暫定감산합의기간 중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등 상당수의 회원국이 자국쿼터를 위반, 증산한 것으로 알려져, 80년대 석유공급과잉 이래 지속되어온 협정위반이拂拭되지 않고 있음을 실감케 하였다. 앞으로도 극심한 經濟難을 겪고있는 OPEC각국은 石油收入증대가 예상될 때는 增産·할인판매 등을 자행하여 OPEC의 減産体制와 固定價格制의 지속을 위협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금년중 위축되어온 非OPEC 산유국의 石油공급이 油價가 상승할 경우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소련·中共 등의 共產圈 산유국의 石油생산도 확대일로에 있어, 이들의 경제개발을 위한 외화수입 증대책으로 原油를 대량으로 덤핑 수출할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油價가 유지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세계石油市場이 공급과잉으로 이미 生産者市場(producer's market)에서 購買者市場(buyer's market)으로 성격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만큼 생산자에 의해 설정된 배럴당 18달러의 油價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따라서 油價는 非需期에 접어드는 오는 4월 이후부터는 하락하였다가 하반기에 다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

이다. 기온, 景氣, 수급 등의 단기요인과 OPEC의 정책변동 등으로 단기적인 등락은 심할 것으로 예상되나, 87년 평균油價는 작년보다 배럴당 2달러 가량 소폭 상승한 배럴당 17달러에 머물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국제原油價는 상당한 수준¹⁾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세계 石油수요는 완만하지만,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非OPEC산유국은 확인매장량이 적고生産費가 높으며, 신규油田의 개발이 미미하여 石油공급능

력을 확대해 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그간 油價상승을 억제해온 공급과잉현상이 90년대 초반까지는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현재 약 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OPEC의 시장점유율도 점차 높아져 OPEC의 카르텔기능도 강화되어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油價는 90년대 초까지의 공급조정기를 거친뒤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 95년 이후 2000년까지는 상승세가 가속될 전망이다. □

註 : 1) DRI는 油價가 1995년에 배럴당 32.5달러, 2000년에 배럴당 62.5(8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는 32.3)달러까지 상승한 것으로 전망했음.

□ 産油國動向 □

사우디, 해외 備蓄原油 방출 움직임 보여

사우디가 6천만 배럴에 달하는 해외 備蓄原油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1987년에 時效 滿了되는 로텔담 海上 비축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탱커 備蓄原油 판매를 위해 이미 조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이 備蓄原油 판매 일정표는 아직은 명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은데, 사우디측은 이 備蓄原油 판매가 석유시장에 충격을 주거나 OPEC의 油價回復 노력을 방해할 것을 염려하여 조심스럽게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사우디 정부는 이미 Exxon과 BP에 유럽에서의 비축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고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갱신일자가 1987년 1월 1일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이다.

유럽 陸上에서는 총 1,300만 배럴의 사우디 原油가 비축되어 있다.

기술적인 견지에서 볼 때 6천만 배럴의 備蓄原油는 하루 50만 배럴씩 인출해서 금년 5월에 가면 바닥이 나게 될 것이다.

이 사우디의 해외 備蓄原油는 최종 소비자 시장에서 가깝고 순식간에 인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석유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사우디가 備蓄原油 방출을 서서히 진행시킨다면 석유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넷트백 판매나 바터거래, 이라크의 軍需用 석유공급 등으로 무리없이 흡수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사우디는 이미 3~4백만 배럴의 原油를 로텔담 비축지에서 빼내어 이라크에 제공한 바 있다. 사실 사우디는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備蓄原油를 방출, 소비자들에게 공급했던 前例가 있다.

또 하나의 備蓄原油 방출은 3천7백만 배럴에 달하는 탱커 備蓄原油 방출 움직임은 우선 탱커 비축의 절반이 비축되어 있는 極東地域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우디는 메이저 석유회사들에게 이 탱커 備蓄原油를 시장에 내놓겠다고 귀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시아 외에도 카브리해의 탱커에 8~9백만 배럴의 原油가 海上에 비축되어 있고, 카브리地域 陸上터미널에 1천만 배럴이 비축되어 있다.

해외 備蓄原油는 사우디로 하여금 빠른 시간내에 原油를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備蓄原油가 1천5백만 배럴만 되어도 사우디는 이러한 이점을 누릴 수가 있다.

OPEC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우디의 해외 備蓄原油가 석유시장에서 판매될 경우 「生産原油」로 간주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사우디가 단기적으로는 OPEC 쿼터 이하의 새로운 生産량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된다.

어쨌든 야마니 시대의 유물인 이 해외 備蓄原油의 방출은 석유시장에 대한 영구적인 위협을 제거해 주겠지만 그 처리과정에서 油價회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을 안고 있어 자못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